외국인 순매수세 시사점

최근 5조원 규모 외국인 순매수세는 반도체 레버리지 플레이로 해석
외국인 지분율과 연초 이후 누적 수급을 고려하면 추가 유입 기대 유효
다만 단기 급등 후 숨 고르기에는 유의. 코스닥 중소형 스타일 확산 기대

강한 반도체 레버리지 플레이, 중소형 스타일로 확산 기대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랠리에서 가장 특징적인 대목은 수급이다. 외국인이 일주일 새에 지수를 5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이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조정 우려가 커지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럼에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를 판단하려면 외국인 순매수세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환율 흐름을 보면 이번 매수가 단순히 달러 약세에 따른 환차익 수요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후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지수 현물뿐 아니라 선물도 함께 매수했는데, 이는 단기 이벤트성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분기 단위 이상의 베타 플레이 성격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지수 전반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매수세가 뚜렷하게 IT 업종에 집중됐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도 동반 상승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반영됐다. 결국 이번 외국인 매수는 반도체 레버리지 플레이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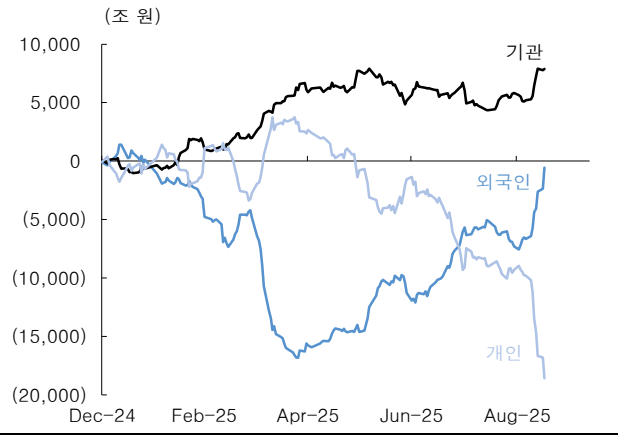
남은 쟁점은 지속 가능성이다. 외국인 지분율은 이제야 최근 5년 평균에 도달했다. 단순히 평균 수준으로의 회복을 가정하더라도 추가 매수 여력은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연초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여전히 순매도 상태라는 점도 추후 유입 여지를 기대해볼 수 있게 한다.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도 DRAM과 NAND 모두의 수급률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사이클 초입에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따라서 당분간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기 상승 폭이 컸던 만큼 숨고르기가 나타날 공산이 있다. 코스피 대형주에서 부각된 매수세가 밸류체인 전반으로 퍼져나가 점차 코스닥 중소형 스타일로 번져 나가는 구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박기훈
khpark@koreainvestm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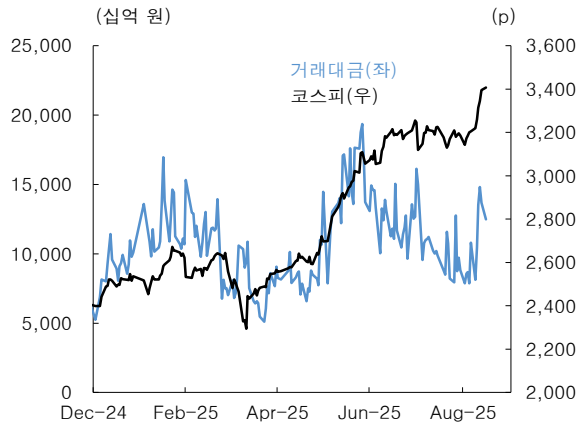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림 1] 강한 외국인 수급. 단, 아직은 연초 누적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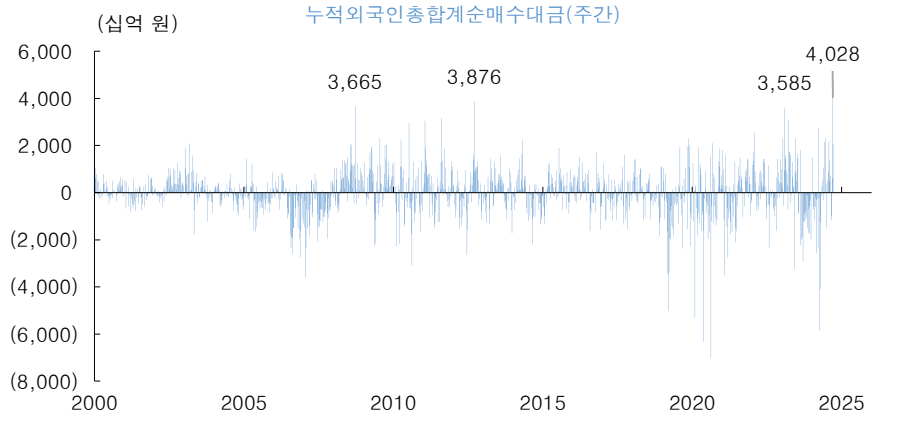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거래대금 규모도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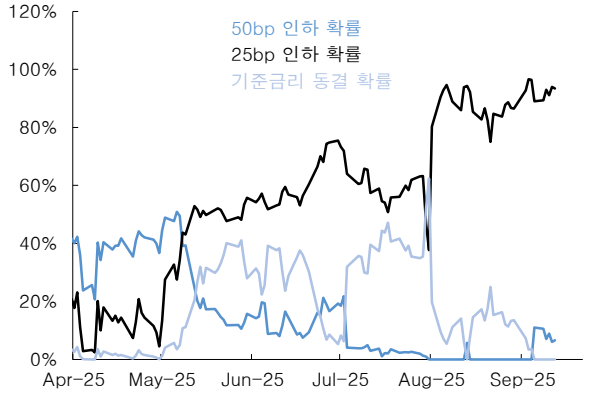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주간 기준 2000년 이후 가장 강한 순매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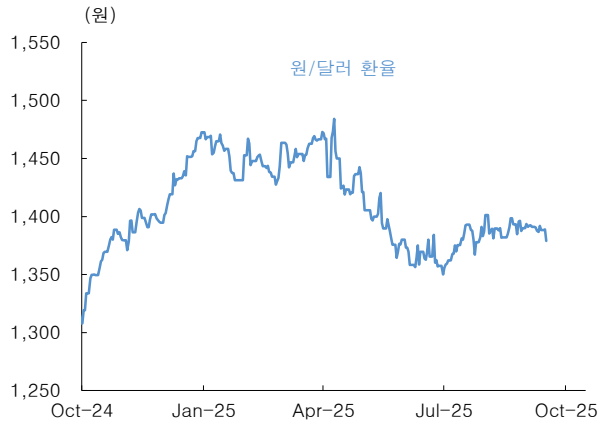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4] 9월 금리 인하가 확실 시 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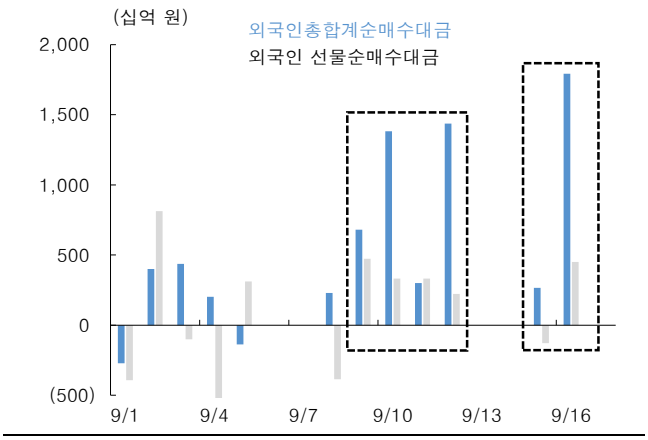
자료: Fedwatch,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후반에서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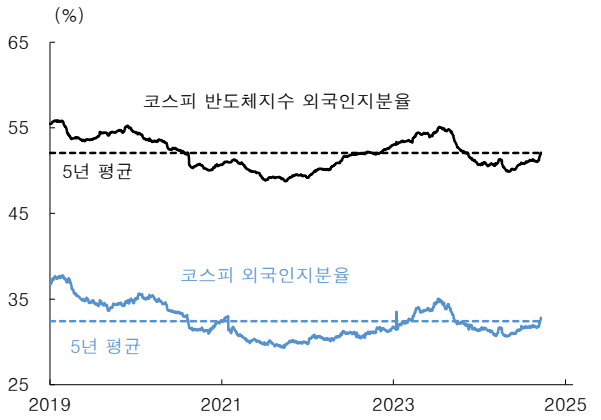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선현물 동반 순매수: 단기 이벤트 성격의 수급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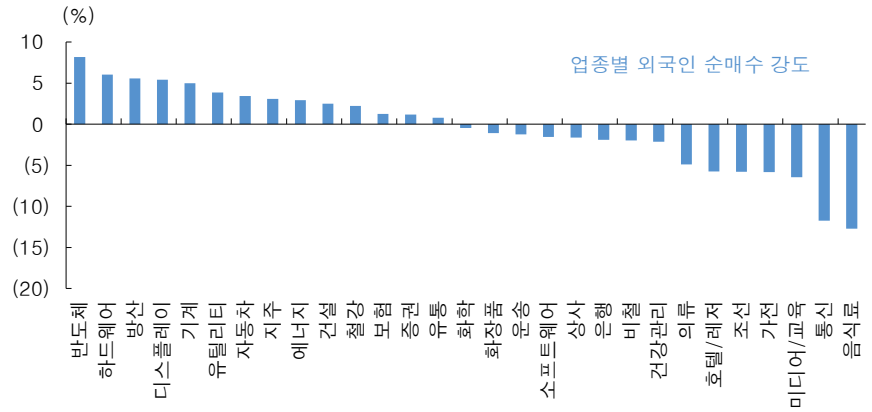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외국인 지분율은 이제 5년 평균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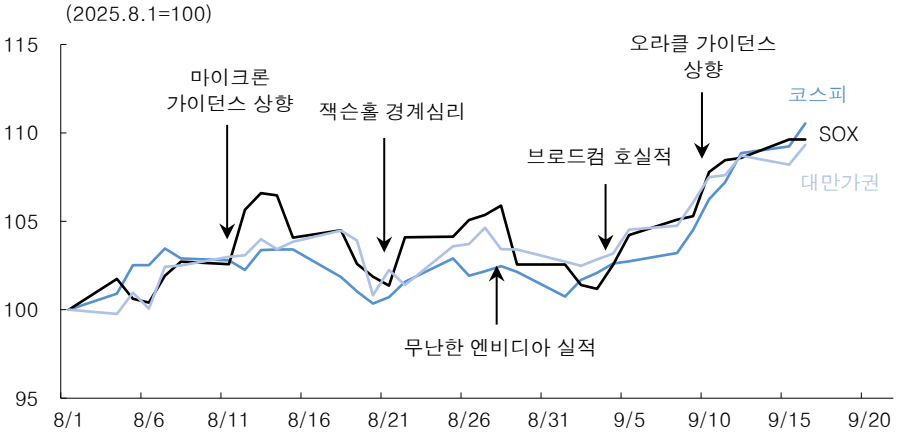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외국인 순매수는 반도체, 하드웨어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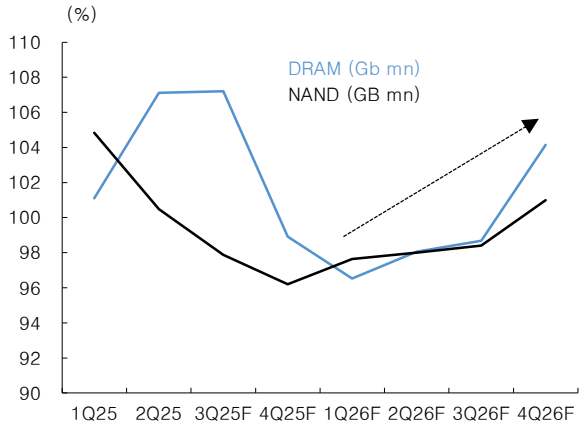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9] 기대를 먹고 자라는 반도체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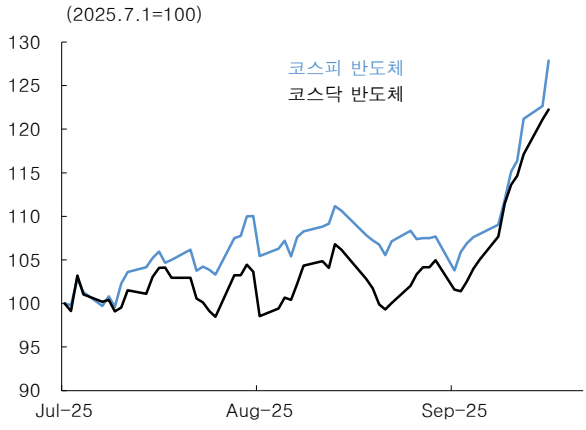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긍정적인 반도체 업황 전망



주: 각각의 공급을 수요로 나눈 수급률. 당사 추정치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상대 성과 열위인 코스닥으로 매수세 확산 기대



주: KSE 반도체 및 KSQ 반도체 지수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